

##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21세기형 군선교와 군종정책



김정우 목사

### 들어가는 말

우리는 이 글에서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21세기형 군선교와 군종정책’을 다루면서, 아래에 제시된 두 가지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첫째,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서 ‘민족’과 ‘국가’의 위치는 무엇인가? 둘째, 민족 복음화의 계획 속에서 ‘군선교’의 위치는 무엇인가?

위의 두 선행 질문은 우리의 중심 주제인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21세기형 군선교와 군종정책’의 신학적 기초가 된다.

- 약력: •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졸업(Ph. D.)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  
• 한국신학정보연구원장

첫 번째 질문은 비전2020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민족복음화의 성경적 근거’에 관한 것이다. 만약 성경 속에서 민족복음화의 신학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민족복음화’라는 넓은 틀 속에서 두 번째 질문인 ‘군선교’라는 특정한 사역의 성격과 위치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민족복음화’와 ‘군선교’는 우리에게 이미 당위적인 의무와 특권으로 주어졌지만, 성경적 근거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실천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또한 우리는 이런 이론적 작업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의 실천에 대한 반성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두 문제를 다룬 후, 우리는 우리의 중심 주제인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21세기형 군선교와 군종정책’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필자는 군종정책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제안보다도 신학적 반추를 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 I.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서 본 ‘민족’과 ‘국가’의 위치: 모범국민을 부르시는 하나님

21세기 군선교와 군종정책이 ‘모범국민을 육성함’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신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단지 ‘개인구원’과 ‘영혼구원’만을 원하지 않으시고, 못 민족과 나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하여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려 하심을 우리는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역사 속에 ‘모범국민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을 보고자 한다.

### 1.1. 창조 언약에 나타난 민족과 국가

기독교신앙의 근본과 뿌리는 ‘창조언약’에 있다. 창조언약이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만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뜻대로 만드시고, 그것들은 보존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살피며, 피조물의 원래의 목적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sov​er​eign)이고 일방적인(unilateral)언약이다(렘 33:20, 25). 이 언약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속성을 따라, 존재하며 발전하고 완성되도록 창조되며 보살핌을 받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동물과 식물을 만드실 때 모두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창 1:12, 21). 이것은 창조질서 속에 이미 ‘종’의 개념이 있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창 1:26-27), 첫 사람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 창조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통일성을 보존하고 있는 원형적 인간’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그들 속에 장차 이루어질 모든 ‘인종과 민족들’이 포함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아담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모든 인종과 민족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 속에 배태된 것이며, 이후 구원 역사를 통하여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1.2. 노아 언약에 나타난 민족과 국가

구약성경에서 ‘나라’(민족과 국가, goyim)라는 단어는 ‘노아 홍수’ 직후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처음 나타나고 있다(창 10:5, 18, 20, 31, 32). 창세기 10장에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는 형식이 다섯 번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서 성경 저자는 여러 민족들과 국가들이 형성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다. 즉, 창세기 10장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은 혈통적으로 보자면 모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신학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며, 이 사건 이전에 온 인류는 ‘한 족속, 한 언어’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바벨탑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써, 사람들의 ‘언어’는 혼잡하게 되어 사람들 사이에 올바른 언어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다. 우리는 역사적 관점에서 바벨탑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10장에서 여러 민족들이 문화하던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25절 참조). 즉, 바벨탑은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어기고 흩어짐을 면하며,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제국주의적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만, 이것 때문에 ‘민족’과 ‘나라들’이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정리하자면, 이 세상에서 여러 민족과 국가들이 형성된 것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연스러운 생육과 번식을 통하여 여러 족속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감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창세기의 저자는 바벨탑 건설에 나타난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을 시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민족들의 기원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 물론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잡해짐으로써, 나라들 사이의 갈등과 긴장은 높아지게 되었을 것이다.

### 1.3. 아브라함 언약에 나타난 민족과 국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뿐 아니라(창 12:2),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을 약속하신다(3절).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단지 그와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함이었다. 이리하여 바로 앞장에서 흠어진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이 아브라함 후손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오도록 준비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범국가’를 만드시고, 그의 복음적 사역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을 ‘모범국가’로 만들고자 하신다.

### 1.4. 시내산 언약에 나타난 민족과 국가

모세의 증보로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질 때(출 19:1, 24:18),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신다(출 19:5, 6). 즉 시내 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범 민족과 국가’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모범 민족과 국가’란 여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나라들을 자신의 소유와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하신다. 즉, ‘제사장 나라’가 될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서 민족과 나라들의 위치에 대하여 신명기 32장 8절은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지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 (1) 열국들은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기업’(nahal)을 얻었다.
  - (2) 민족들과 나라들(beney 'adam)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누어주셨다(parad).
  - (3) 민족들과 나라들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다.
-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

하나님께서 친히 열국들과 인종들에게 각자의 기업을 주신 것으로 알 수 있다(창 10장). 특히 사해 사본과 70인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효대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각 민족마다 ‘천사들’을 배정하여 그들을 돌보게 하였다는 암시를 준다. 우리가 마소라와 70인역의 두 독법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따라 민족들과 나라들을 만드시고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이스라엘’과 ‘이방’이라는 이분법적인 대립구도로 열국들과 못 민족들을 보아왔지만, 이 구절에 따르면 열국의 주체는 하나님 이시며, 하나님께서 각 민족과 나라에 고유한 언어와 역사와 기업과 경계를 주시고 있다. 즉, 못 나라와 민족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스스로의 ‘고유성, 주권, 자결권’을 가진다.

### 1.5. 다윗 언약과 민족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는 혼란과 분열의 시대였다. 사사시대를 마무리지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가 되게 하시며,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신다(삼하 7:7, 11).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 언약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 언약, 시내 산 언약을 이어받고 완성해 가는 역할을 한다. 이리하여 다윗의 왕권은 정의와 평화를 이 땅에 이루려는 하나님의 이상적 왕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어지고 있다(시편 72편). 그의 왕권은 사회정의 실현하는 데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온 열방의 모범이 되는 데 있다. 하나님은 다윗을 자신의 ‘아들’과 ‘장자’로

세우시며, 열국의 왕들과 방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시편 89편의 시인은 다윗을 ‘지극히 높은 자’(Elyon)로 부르며, 메시아적 위상을 부여하고 있다. 시편 2편에서도 시인은 열국의 왕들과 제후들로 하여금 다윗 왕에게 복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즉, 다윗의 왕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열국 속에서 자신의 왕권을 세우시고자 하신다.

## 정 리

하나님은 그가 처음으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만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일에 여호와와 그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사 2:2)를 바라본다. 그 때 모든 이방 민족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시온 산을 향하여 오며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려고 할 것이다(3절). 이 때 하나님께서 열국 사이에서 판단하시고 세계적인 평화를 이룰 것이다.

이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열국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앗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 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사 19:24-25). 이사야 전반부는 앗시리아의 위협으로 가득 차 있지만, 선지자는 당

대 최고의 두 적대국인 ‘이집트와 앗시리아’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바라보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의 염원은 시편 87편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개역, 4, 6절). 즉 시인은 이스라엘의 불구대천지 원수들이었던 모든 적대적인 나라들과 민족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모든 열국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교만으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은 ‘모범국민’이 되는 데 실패하였으며,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이방의 빛’이 되도록 하셨다. 그렇지만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새 언약의 완성으로 성취된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를 통하여 창조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에 담긴 열국의 구원을 새 언약으로 완성시키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도록’ 위임하신다. 사도 요한은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시로 들어올 것”을 그리고 있다(계 21:2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구원 계획 속에서 ‘민족’과 ‘국가’의 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힘써 민족 복음

화를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한국 민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속에서 ‘한 민족과 국가’로 세움을 받았으며, 유구한 역사를 이어 왔고, 무엇보다도 기독교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서 큰 은혜를 받았다. 교회사적으로 보자면, 현대사에서 한국교회만이 ‘민족복음화’라는 꿈을 갖는 특권을 누려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4년 엑스플로 ‘74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가 이루어온 민족 복음화 운동에는 반성할 점들이 없지 않다.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어 가면서도 진정한 영적사역을 통한 개인적 성숙과 전 인격적이며 총체적인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보다, 외형적이고 전시적인 운동에 이끌려 감으로써 교회는 비대해지고, 영적인 역동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1세기적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설정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완성해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통일지상주의’나 ‘배타적인 민족주의’는 지양하며, 세계의 열방들과 평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못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범적인 민족’으로 성숙해 가야 할 것이다.

## II. 민족 복음화의 계획 속에서 군선교의 위치: 모범 국민 육성을 위한 성서적 모델

우리는 앞 장에서 각 민족을 복음화하는 것이 창조주이시며 구속주 되신 하나님의 뜻임을 보았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과 국가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며, 하나님이 열국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족속에게서

자신의 제자를 삼으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국민으로서 우리의 백성을 교화하고 돌보는 복음화의 역사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복음화의 다양한 영역 가운데서 ‘모범 국민 육성’을 위한 ‘모범 군인 육성’에 대하여 이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알맞은 미래 지향적 군선교의 방향을 모색하면서, 먼저 성경 속에서 군선교신학의 모델을 형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모범 군인의 대장 되신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 2.1.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은 목자, 왕, 포도원 농부 등 다양한 영상으로 나타나지만, ‘용사’로서의 모습이 창조와 구속사역에서 중심적인 영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의 전쟁사역에 대한 구속사적 개관과 용사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일차적으로 정리해 본다.

### 2.1.1.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의 전쟁사역에 대한 개관

(1) ‘용사’(ish milchama)로서의 하나님의 칭호는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 출애굽을 기념하며 부른 노래에 처음 나타난다(출 15:3).

(2) 그러나 천지창조는 시편에서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혼돈의 세력을 정복하신 것으로 주로 묘사되고 있다(시 24:1-2, 29:1-11, 89:8-14 등).

(3)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쫓으신 후, ‘그룹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써 에덴 동산을 지키시는 모습은 용사가 파수꾼을 세우는 모습이다(창 3:24).

(4) 노아 홍수는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찬 세상을 우주적인 스케일로 심판하신 것이며(창 6:1-8), 이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을 친히 보호하셨음을 보여준다(창 7:1; 8:1, 20-22).

(5)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주어진 ‘방패’와 ‘상급’의 약속은 전쟁 용어이다(창 15:1; 시3:3).

(6)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불 심판으로 이루어지며(창 19:24-25), 이것은 후대의 문헌에서 전쟁의 영상으로 이해되며 그려지고 있다(신 29:22; 사1:9; 렘 20:16, 49:17-18, 50:39-40; 호 11:8; 습 2:9).

(7) 출애굽에서 10대 재앙(출 12:23)과 홍해 도하와 이집트 군대의 심판은 모두 전쟁의 영상으로 주어진 다(출 14, 15장).

(8) 이후 구원사의 주요 사항들(예-가나안 정복에서 바벨론 포로와 포로귀환)은 거룩한 전쟁의 영상으로 주어진다.

### 2.1.2.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의 전쟁사역에 나타난 모습

(1) 하나님은 용사로서 ‘만군의 야웨’라는 칭호를 가진다(삼상 1:3, 11, 4:4, 15:2, 17:45; 삼하 5:10, 6:2, 18, 7:8, 26; 시 24:10, 46:7, 11, 48:8, 59:5, 69:6, 80:4, 19, 84:1, 3, 8, 12, 89:8 등).

(2) 하나님은 가끔 ‘야웨의 사자’(출 23:20, 14:19, 33:2; 민 20:16; 삿 2:1-5, 6:12, 13:3-22)와 ‘야웨의 군대장관’(수 5:15)

이란 칭호로 나타나기도 한다.

(3) 하나님은 용사로서 ‘모략가’이시다(사 9:5, 19:17, 41:28; 시 33:10-11; 잠 24:6).

(4) 하나님의 팔(출 3:19, 20, 6:1, 7:4, 5)과 ‘손’(출 9:3, 16:3; 신 2:15; 수 4:24, 22:31; 삿 2:15; 삼상 5:6, 9, 7:13, 12:15; 삼하 24:14; 시 75:8 등)이라는 은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힘차고 무서움을 보여준다.

(5) ‘법궤’는 주님의 전차이며, 주님은 법궤를 타고 원수들을 무찌르신다(민 10:35-36, 14:44; 신31:7-9; 삼상 6:1-12 등).

(6)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친히 전장에 임하신다(신 33:2; 사 19:1; 렘 4:13; 시 68:4, 33). 여기에서 ‘구름’은 ‘천군천사들’을 가리킨다(왕하 2:10-11; 단 7:13-14; 마 24:30; 26:64; 막13:26; 행 1:11; 계 1:7).

(7) 하나님께서 나아가실 때, ‘나팔 소리’가 나타난다(출 19:6, 19, 20:18). 때때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다(민 10:1-9; 수 5:13-15, 6:4-5). 나팔소리는 하나님의 강림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8) 하나님께서 나아가실 때 자연도 순종한다. 이리하여 홍해와 요단 강이 갈라지며, 여호수아 시대에는 해와 달이 하늘에 머무르고, 드보라의 전투에서는 폭우가 쏟아져 가나안의 시스라 장군의 전차가 무용지물이 된다.

(9)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며, 자신의 백성들이 부패하여질 때에는 ‘거룩한 전쟁을 역전시켜’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정화시키신다.

(10) 위에 제시된 다양한 기사들을 볼 때, 성경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고, 정의와 평화의 세계를 세우기 위

하여 친히 전쟁을 하심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악이 이 세상에 관영하게 되며, 인간들이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나아가면 ‘진멸하는 전쟁’(헤렘)을 치루신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 노아 홍수와 소돔 고모라의 멸망과 정복전쟁에 있어서 여리고, 아이 성, 하솔을 진멸하는 것으로 들 수 있다(수 11:8, 11).

## 2.2. 거룩한 용사 이스라엘의 역할

구약성경에 따르면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선민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이 땅에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용사로 세우신다. 이리하여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심판하는 정복 전쟁을 치르며, 이후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수많은 전투를 치르다가 결국 앗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가 된다. 열왕기서 기자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옛 가나안 사람들처럼 부패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역전(逆戰)시키므로써, 그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땅을 잃게 하신다. 그러나 그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후 귀환을 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이후에 영적 이스라엘의 족대는 신약 교회로 넘어가게 된다.

### 2.2.1. 두 가지 모델

#### (1) 완전한 수동적 모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사건은 하나님의 전투로 묘사된다(출 14:13, 14; 시 114). 이 때 이스라엘 백

성들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바다가 나누어졌을 때 지나가는 역할만 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을 추격하던 이집트의 군대들은 바다에 수장된다. 이 후에 동일한 형태의 전투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이루어진다. 또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 성을 돌기만 하며 실제적인 전투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간섭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다(수 5:13-15).

## (2) 신인 협력적 모델

광야생활을 할 때 아말렉과 싸우면서 모세와 아론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가 싸운다(출 17:11-16).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며, 이것을 기념하여 ‘여호와 닛시’(여호와는 나의 깃발)라는 칭호를 만든다. 사사시대의 정복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전투 중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얻는다(삿 1:21, 2:18, 3:10, 28, 7:9, 20, 20:28).

## 2.2.2. 거룩한 용사 이스라엘의 임전태세

(1)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시 3:5, 46:1-3).

(2) 이스라엘은 적군을 보고 ‘두려워 말아야 한다’(al-tira, ‘두려워 말라’, 창 15:1; 출 14:13; 수 1:6-9, 8:1, 11:6, 10:25 등). 이스라엘이 전쟁터를 향하여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갈 때, 오히려 원수들이 두려워 한다(삿 7:22).

(3) 이스라엘은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물어 보아야 한다(신 1:42).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그리고 기브온 족속과 평

화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큰 패배와 어려움을 당한다.

(4) 이스라엘은 ‘진(眞)의 거룩함’을 유지하여야 한다(수 5:2-9, 22:10, 24:19).

(5) 이스라엘은 승리 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린다. 이리하여 모세와 미리암(출 15), 드보라(삿 5), 삼손(삿 15:16), 다윗(삼하 22, 시 18) 등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노래한다.

(6) 선지자들은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도록 기도한다(사 18:3, 27:13; 렘 6:17, 51:27; 겔 7:14). 선지자들이 열국에 대하여 많은 예언을 하는 것은, 그들의 전쟁에서 언어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 2.3. 정리와 신약성경적 관점

구약성경에서 대부분의 모범적인 인물들은 ‘군인들’이었다. 여호수아, 웃니엘, 기드온, 삼손, 사울, 다윗 등 구원사의 주축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용사’로서, ‘여호와와 싸움’을 싸우며 외적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였다.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이후에, 신자의 전투는 주로 영적인 전투로 대체된다(갈 1:16; 고전 15:50). 우리의 원수는 ‘공중의 권세자인 마귀’이며(고후 4:4), 우리는 ‘성령의 겹’과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운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굳게 서서 잘 싸워야 한다’(롬 11:20; 고전 10:12-13; 고후 1:21). 물론 신약성경 안에서도 군대는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용인되고 있다.



### III.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21세기형 군선교와 군종정책의 모색

#### 3.1. 20세기 군선교 회고와 반성

본 <군선교연합회>에서 최근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 20세기 군선교는 군복음화를 목표로 하여, 아래의 일곱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 (1) 군종목사제도 시작
- (2) 진중교회당 건축(하드웨어 구축)
- (3) 진중세례운동 시작(1, 2차)
- (4) 장병위문 복지활동 중심
- (5) 특정교회(소수)의 사업후원 중심
- (6) 초교파 연합지역으로 출발
- (7) “군선교연합회”라는 공인전문기관설립

지난 50년 동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군선교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기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군선교에 있어서 ‘군 고유의 역할 속에서의 신중한 선교’를 추구하기보다 외형적이고 물량적이며 공격적인 군선교를 함으로써, 타종교와의 심각한 경쟁과 마찰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군선교를 ‘황금어장’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모든 종교들이 군대를 ‘황금어장’으로 여긴다면 어장에서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며, 이것은 군종활동의 고유한 역할을 결국 침해하는 해악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 3.2.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만든 ‘장병종교활동제도

####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비평적 고찰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만든 ‘장병 종교 활동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세 가지 중심 내용을 담고 있다.

- (1) 종교간 갈등 개선(선교·포교 과열현상)
- (2) 군종장교를 현역, 군무원 통합 시스템
- (3) 선교·포교 금지(미군종 시스템)

위의 제안은 최근에 급격한 변화를 겪고 군선교의 정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여러 종교와 종단들의 군선교에서의 과열현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활동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종교다원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군의 위상이 크게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향후 국군은 정예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의 수는 양적으로는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군선교의 정책에도 급격한 변화가 전망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제안은 2003년 11월 폐기되었다고 하지만, 현실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성숙한 군선교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 두어야 할 것이다.

#### 3.3. 21세기형 군선교와 군종정책 모색: 모범국민 육성안

20세기 기독교 중심의 군선교가 지나친 과열경쟁을 만들어 군지휘체계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건전한 선교에도 장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며 성경적인 세계관, 국가관, 군인관을 반영하는 군선교 철학과 정책

을 모색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잠정적으로 ‘모범국민 육성안’으로서의 군선교의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 3.3.1. 복음전파의 3요소: 복음, 전도자, 피전도자

선교에는 항상 전할 내용과 전달자와 전달을 받는 자라는 세 구성요소가 있으며, 세 구성요소들 간의 역동적인 만남이 요청되고 있다.

#### (1) 복음의 의미에 대한 개념 정립

‘복음’이란 단어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다. 우리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계관과 인생관의 근본적 변화를 통하여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며, 진정한 믿음의 체험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가는 것으로 이해한다.

#### (2) 전도자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도자는 ‘대사’(ambassador)와 같이 그를 보낸 파송자의 뜻을 가감함이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자이다. 복음전파에 있어서 전도자는 성경적인 복음을 그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진실되게 전하여야 할 것이다.

#### (3) 피전도자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도자를 통하여 피전도자에게 전달된 복음의 메시지는 피전도자에게도 산 경험이 되며, 피전도자까지 참여하는 드라마가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 3.3.2. 21세기 군선교에서 본 복음전파의 3요소

#### (1) 복음의 의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참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이다.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거룩한 용사들을 세우시며, 이들을 통하여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이 민족을 복음화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다.

#### (2) 전도자로서의 군종사역자

군종사역자들은 무엇보다도 군 고유의 목표를 이해하며, 21세기의 시대정신에 어울리는 군종사역의 철학과 신념을 새롭게 형성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군 안에서의 종교적 갈등들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며, 타종교 사역자들을 존중하며, 군의 사기진작과 임무 수행에 있어서 함께 협동하는 데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군종사역자들은 군에서 근무하는 기독교 신자들을 잘 돌볼 뿐 아니라, 비기독교 군인들에게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그들도 복무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보살피는 사역을 한결 같이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 (3) 피전도자로서의 군인들

대부분의 군인들은 ‘의무복무’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으며, 급변하는 사회적·가정적 환경 때문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는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군선교 프로그램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군 생활 속에서 새로운 영적·정신적 각성을 경험하며, 군생활이 그들의 인생에서 참으로 유익하였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돌보

고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 3.3.3.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군선교 방향 전환의 의의

#### (1) 영적인 관심과 함께 사회적 관심을 함께 가짐

우리는 군인들이 진정한 영적체험을 할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와 군인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음을 일깨워야 할 것이다.

#### (2) 전인격적 관심과 함께 공동체적 관심을 가짐

우리의 복음은 궁극적으로 전인격적인 변화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과시적인 종교적 활동에 치우치지 않고, 신자들의 인격적 성숙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신자들이 내면적 덕성 함양뿐 아니라 공동체적 활동과 봉사에도 헌신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 (3) 국가적 관심과 함께 세계 평화 유지에 대한 관심을 가짐

21세기 한국군은 단지 국토 방위 뿐 아니라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쟁과 갈등에 대한 교육과 평화추구를 위한 군의 역할에 대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도 함께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맺는 말

우리는 위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 (1) 하나님께서는 각 민족과 나라에 고유한 주권을 허락하

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의 복음화를 이루시길 원하신다 (2)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악을 물리치고 선을 도모하며, 평화와 질서를 세우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길 원하신다. 군선교는 이런 관점에서 거룩한 용사들을 더욱 배양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향으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 군선교에 있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 고유의 사역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군선교에서 우리는 물량주의, 배타주의, 독선주의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3) 군선교에 있어서 우리는 타종교 사역자들과 군 고유 목적을 이루도록 협력하는데 힘쓰며,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각자 자신의 고유한 가르침과 실천을 힘써야 할 것이다.

(4) 성숙한 군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군종과 지역교회와 군선교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에 힘써야 할 것이다.